

느티나무에 부는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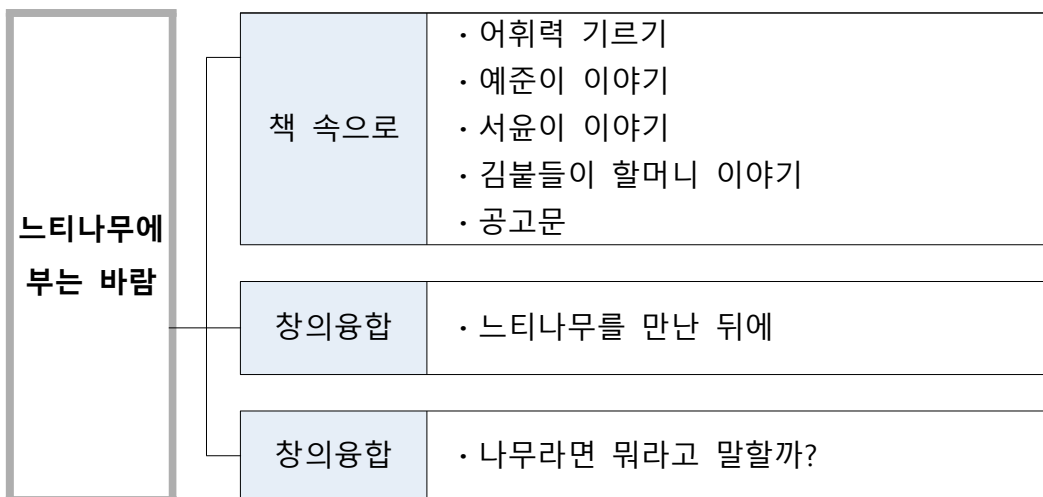
- * 글 : 박지숙
- * 그림 : 시은경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60쪽
- * 대상 : 초등 3학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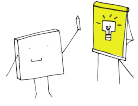
· 책 소개

위로와 성장, 긍정과 용기, 공감과 응원
 나무로부터 힘을 얻은 세 주인공의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지만 인간의 편의 앞에서 그 외침은 아무런 힘이 없다. 이 작품은 아파트 단지 내 오래된 나무를 베고 주차장을 늘리자는 관리사무소의 공고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나무를 베어 주차 공간을 조금 더 늘릴 것이냐, 나무의 가치를 보존할 것이냐. 인간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의견을 많이 낼 수 있지만, 나무를 보존하자는 주장에 근거를 대기는 쉽지 않다. 심적으로 그래야 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잘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나무로부터 힘을 얻은 세 명의 주인공 예준, 서윤, 김불들이 할머니를 통해 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준다. 작가의 실제 경험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이고, 주차난은 도시 주거지 대부분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 누구에게나 쉽게 공감될 이야기이다.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느티나무에 부는 바람』의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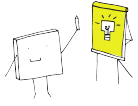
2. 『느티나무에 부는 바람』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언젠가 길을 가다가
 나뭇잎이 네 어깨에 내려앉을 때나
 너의 손에 떨어질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줘.

바람을 타고 나뭇잎이 네 방에 들어올 때는
 그것이 결코 바람의 실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건 내가 널 초대하기 위해 애쓴 결과니까.

내 초대를 받아 주겠니?
 나는 언제나 같은 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 1) 뒤표지 글의 화자는 누구일까요?
- 2) 누군가 언제나 같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 3)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나에게 말을 건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 주면 좋을까요?



독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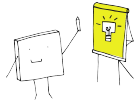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며 읽기**
 -재미있는 표현이나 기억에 남는 글귀를 생각하며 읽어요.

※ 『느티나무에 부는 바람』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부분을 적어 봅시다.

읽은 날짜	읽은 쪽	인상 깊은 부분
○월 ○일	25쪽	예준이가 처음으로 좌절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실패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어른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2. 책에 나오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어떨까요? 등장하는 사람의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예준이	→	
서윤이	→	
김불들이 할머니	→	
할아버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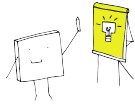
독서 후 책 속으로 어휘력 기르기

1. 『느티나무에 부는 바람』에 나오는 문장과 단어를 읽고, 밑줄 친 단어의 뜻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는 사전에서 찾아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단어	단어의 뜻은 뭘까?
① 이 세상의 <u>유일무이</u> 한 존재야.	
② 씨앗은 <u>비옥</u> 한 땅에 내려앉기도 해.	
③ <u>돌개바람</u> 이 불기라도 했을까, 3층에 있는 창문으로 들어온 게 신기했어.	
④ 아까 큰 소리로 <u>호통</u> 을 치던 할아버지였다.	

2. 왼쪽의 관용구를 오른쪽의 상황에 맞게 연결해 보세요.

- | | | | |
|-------------|---|---|--|
| 간이 떨어지다 | · | · | 몹시 애가 탈 때, 무엇이 마음에 들어 정도 이상으로 흐릿함을 느낄 때. |
| 간에 기별도 안 가다 | · | · | 먹은 것이 너무 적어 먹으나 마나 할 때. |
| 간이 녹다 | · | · | 깜짝 놀랐을 때. |
| 간이 붓다 | · | · | 지나치게 대답할 때.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예준이 이야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6학년이 되면 예준 입시도 준비해야 했다. 그것도 망칠 것만 같았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전국의 수많은 초등학생이 모두 예준을 목표로 할 텐데 거기에서도 잘 안되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시도를 안 해서 포기하는 것이 나았다. 다시 도전해서 떨어지면 견디지 못할 것만 같다.

(나) “나는 껍질이 갈라지고 벗겨지면서 크는 존재니까. 사람의 세월로는 한 20년쯤 될까? 20년마다 나는 상처가 생기고 그 아픔을 겪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키가 자라고 몸집이 커진단다. 예전에 나를 덮고 있던 껍질들은 모두 딱지처럼 떨어져 나가고 말이야. 새로워지는 거지. 이 세상에 상처 없이 성장하는 일은 없어. 누구나 자라기 위해 아픔을 감당해야 한단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어른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여러 번 나 같은 과정을 겪었을 거야. 아픔 없이 크는 것들은 없으니까.”

“난, 난 더는 상처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 지금도 너무 아픈걸.”

나는 나무 요정을 외면하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긴 한데, 알려 줄까?”

“응, 알려 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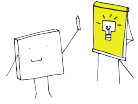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나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나무 요정에게 물었다.

“상처 없이 살아갈 방법은 아주 간단해.”

“어떤 방법인데?”

“자라지 않으면 되지.”

1. 예준이는 왜 바이올린을 포기하려고 했나요?
2. (나)에서 예준이를 위로하는 건 누구인가요?
3. (나)의 밑줄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서윤이 이야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야, 그거 아냐, 이서윤 말이야, 엄마랑 아빠가 각자 결혼해서 서윤이를 버렸대. 그래서 지금 고모랑 산대. 막 구박받으면서 살걸.”

“와, 진짜 불쌍하다.”

나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친구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만 같았다.

“우리 엄마한테 그 말 했더니 이제 그런 이상한 애랑은 친하게 지내지 말래. 얼굴 표정도 너무 아이답지 않게 어둡대. 원래 그런 문제 가정에서 문제아가 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개도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큰 거지. 조심하라고 그랬어.”

나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나는 내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는 누군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목소리는 분명 지민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나는 이제 불쌍한 아이가 되었다가 이상하고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큰 아이가 되어 버렸다.

(나) “고양이가 먼저 사람을 공격했다는 거야? 개도 아닌데? 와, 아빠가 진짜 놀랐겠다.”

지민의 말에 다현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에 안도하다가 갑자기 고양이 이야기가 나와서 뒤를 돌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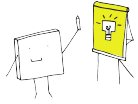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그래, 진짜야. 아빠가 밤에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고양이가 높은 나무에서 아빠를 공격하려고 뛰어내렸대. 날카로운 발톱을 들면서 말이야. 아빠가 잘 피해서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아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수도 있었대. 그리고 아빠가 그러는데 고양이 중에 검은 고양이는 완전 불길한 동물이래.”

1.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가)와 (나)에는 어떤 편견이 들어 있나요? 찾아서 적어 보세요.

(가)	(나)

2. 서윤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서윤이의 친구가 되어 서윤이를 응원하는 말을 적어 주세요.

3. 사람들의 편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가 경험한 편견을 적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김불들이 할머니 이야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하지만 딸은 엄마에게도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노인네들은 어디로 갖다 놓든지 간에 아무 데나 뿌리를 잘 내리는 식물이라 생각하는가 봐. 하지만 그렇지 않아. 나이 먹어도 낫선 곳은 두렵고 사람이 그리운 것도 잘 못 참고 외로운 건 더더욱 괴롭고 힘들어해. 젊은 이나 늙은이나 그런 점에서는 다 비슷하지.

(나) 그렇게 며칠째 만남이 계속되고 나서 우리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어. 느티나무 아래 의자가 하나에서 세 개가 되었다가 다섯 개로 늘어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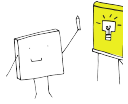
“시골 같으면 여기에 평상을 가져다 놓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평상 위에서 발 펴고 하면 더 편할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젊은 새댁들이 다음 날에 폭신하고 넓은 돛자리를 들고 나왔어. 세상에, 평상보다 더 좋지 뭐야.

이제는 지나가는 아이들도 우리가 뭐 하는지 들여다보다가 새댁들이 데리고 온 두세 살 아이들이 랑 놀아 주기도 하고 웅알이를 신기한 듯 들어 주었어. 사람이 복적이니 동물도 들여다보더구먼. 길고양이라는 까만 고양이도 우리 모임에 께지. 서운이란 아이가 와서 고양이 이름도 알려 줬어.

1. 김불들이 할머니의 마음은 (가)와 (나)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2.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는 느티나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느티나무의 마음을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3. 나와 가까운 곳에도 나무가 있나요? 집이나 학교에서 매일 보는 나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 나무를 관찰해 보고, 그 나무가 어떤 생각을 할지 짐작해서 적어 보세요.

어디에 있는 나무인가요?	
어떻게 생겼나요?	
나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공고문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파트 주차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입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 느티나무를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의견에 대한 찬반 서명을 받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각 세대를 방문하는 직원들에게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불들이 할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새끼줄로 느티나무를 둘러맸다. 그리고 그 줄에 하얀 종이를 등성등성 달았다. 할머니만의 금줄이었다. 그 옆으로 황토도 뿌렸다. 부정한 기운이 느티나무 곁에 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 모두가 나무를 지키는 일이었다.

(다) 여러분, 이 느티나무를 꼭 살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공약을 내걸겠습니다.

저는 1년에 두 번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바이올린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저와 같이 연주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보다 크고 멋진 공연을 하겠습니다. (고퀄리티 연주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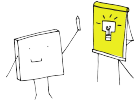
또 고양이 박사인 서윤이는 고양이 집사들을 위해 필요한 상식들을 알려 주고 집사들의 고민 상담도 해 드릴 겁니다.

느티나무는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주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꼭 이 나무를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느티나무를 좋아하는 서윤, 예준, 김불들이 할머니는 어떤 일을 했나요?

예준	
서윤	
김불들이 할머니	

2.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면 나는 느티나무 베는 것에 찬성할 건가요, 반대할 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나의 의견을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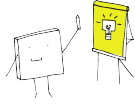


독서 후 창의융합_ ① 느티나무를 만난 뒤에

1. 책의 주인공들은 느티나무를 만난 뒤에 생각이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해서 적어 보세요.

인물	느티나무를 만나기 전	느티나무를 만난 후
예준		
서윤		
김붙들이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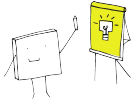
2. 주인공 중 한 사람이 되어 느티나무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 보세요.



독서 후 창의융합_ ② 나무라면 뭐라고 말할까?

※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그 고민에 나무라면 뭐라 답할지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친구들의 고민	나무라면 뭐라 말할까?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p>2쪽</p>	<p>1. 예) 표지에 그려진 사람들은 모두 느티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예) 왜 제목이 ‘느티나무에 부는 바람일까?’ 예) 나무 위에 올라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p> <p>2. 1) 나무, 느티나무 2) 예시 답안) 든든하다, 무섭다 등 3) 예시 답안) 나무가 말을 걸어 주면 좋겠다. 오랜 시간 한 자리에 있었던 나무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면 재밌을 것 같다.</p>																											
<p>3쪽</p>	<p>1.</p> <table border="1" data-bbox="268 757 1375 1267"> <thead> <tr> <th>읽은 날짜</th> <th>읽은 쪽</th> <th>인상 깊은 부분</th> </tr> </thead> <tbody> <tr> <td>○월 ○일</td> <td>25쪽</td> <td>예준이가 처음으로 좌절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실패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어른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td> </tr> <tr> <td>○월 ○일</td> <td>64쪽</td> <td>친구들에게 어렵게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서운이를 피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서운이가 안쓰러웠다.</td> </tr> <tr> <td>○월 ○일</td> <td>86쪽</td> <td>할아버지는 느티나무일까? 느티나무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서운이를 위로한 것 같아 신기했다.</td> </tr> <tr> <td>○월 ○일</td> <td>153쪽</td> <td>나뭇잎을 나무의 초대장이라고 표현한 게 너무 멋있었다. 나도 나무의 초대장을 받으면 나무를 자세히 보고, 말을 걸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td> </tr> </tbody> </table> <p>2.</p> <table border="1" data-bbox="268 1326 1366 1886"> <tbody> <tr> <td>예준이</td> <td>→</td> <td>⇒ 예시 답안) 바이올린을 잘 켜서 ‘음악 신동’이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콩쿠르에서 입상하지 못하자 바이올린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 그때 나무 요정을 만난다.</td> </tr> <tr> <td>서운이</td> <td>→</td> <td>⇒ 예시 답안) 서운이는 아파와 떨어져 고모네 집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가족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 이후로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자 서운이는 슬픔에 빠진다. 그때 서운이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난다.</td> </tr> <tr> <td>김불들이 할머니</td> <td>→</td> <td>⇒ 예시 답안) 손녀를 봐주려고 딸의 집에 와 있다. 하지만 친구도 없는 타지에서 외롭고 쓸쓸해 한다. 그러다가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발견한다.</td> </tr> <tr> <td>할아버지</td> <td>→</td> <td>⇒ 예시 답안) 느티나무를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 한다.</td> </tr> </tbody> </table>	읽은 날짜	읽은 쪽	인상 깊은 부분	○월 ○일	25쪽	예준이가 처음으로 좌절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실패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어른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월 ○일	64쪽	친구들에게 어렵게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서운이를 피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서운이가 안쓰러웠다.	○월 ○일	86쪽	할아버지는 느티나무일까? 느티나무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서운이를 위로한 것 같아 신기했다.	○월 ○일	153쪽	나뭇잎을 나무의 초대장이라고 표현한 게 너무 멋있었다. 나도 나무의 초대장을 받으면 나무를 자세히 보고, 말을 걸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준이	→	⇒ 예시 답안) 바이올린을 잘 켜서 ‘음악 신동’이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콩쿠르에서 입상하지 못하자 바이올린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 그때 나무 요정을 만난다.	서운이	→	⇒ 예시 답안) 서운이는 아파와 떨어져 고모네 집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가족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 이후로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자 서운이는 슬픔에 빠진다. 그때 서운이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난다.	김불들이 할머니	→	⇒ 예시 답안) 손녀를 봐주려고 딸의 집에 와 있다. 하지만 친구도 없는 타지에서 외롭고 쓸쓸해 한다. 그러다가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발견한다.	할아버지	→	⇒ 예시 답안) 느티나무를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 한다.
읽은 날짜	읽은 쪽	인상 깊은 부분																										
○월 ○일	25쪽	예준이가 처음으로 좌절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실패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어른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월 ○일	64쪽	친구들에게 어렵게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서운이를 피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서운이가 안쓰러웠다.																										
○월 ○일	86쪽	할아버지는 느티나무일까? 느티나무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서운이를 위로한 것 같아 신기했다.																										
○월 ○일	153쪽	나뭇잎을 나무의 초대장이라고 표현한 게 너무 멋있었다. 나도 나무의 초대장을 받으면 나무를 자세히 보고, 말을 걸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준이	→	⇒ 예시 답안) 바이올린을 잘 켜서 ‘음악 신동’이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콩쿠르에서 입상하지 못하자 바이올린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 그때 나무 요정을 만난다.																										
서운이	→	⇒ 예시 답안) 서운이는 아파와 떨어져 고모네 집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가족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 이후로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자 서운이는 슬픔에 빠진다. 그때 서운이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난다.																										
김불들이 할머니	→	⇒ 예시 답안) 손녀를 봐주려고 딸의 집에 와 있다. 하지만 친구도 없는 타지에서 외롭고 쓸쓸해 한다. 그러다가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발견한다.																										
할아버지	→	⇒ 예시 답안) 느티나무를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 한다.																										
<p>4쪽</p>	<p>1. (가이드) 아이들이 자기가 적은 단어의 뜻과 사전의 뜻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사전은 기본형으로 찾을 수 있게 해 주세요.</p>																											

	<p>*유일무이: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음. *비옥하다: 땅이 걸고 기름지다. *돌개바람: 갑자기 부는 바람.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며, 태풍·선풍·허리케인·사이클론 따위로 불린다. *호통: 몹시 화가 나서 크게 소리 지르거나 꾸짖음. 또는 그 소리.</p> <p>2.</p> <p>간이 떨어지다 . . . 몹시 애가 탈 때, 무엇이 마음에 들어 정도 이상으로 흐뭇함을 느낄 때. (간이 녹다)</p> <p>간에 기별도 안 가다 . . . 먹은 것이 너무 적어 먹으나 마나 할 때. (간에 기별도 안 가다)</p> <p>간이 녹다 . . . 깜짝 놀랐을 때. (간이 떨어지다)</p> <p>간이 붓다 . . . 지나치게 대답할 때. (간이 붓다)</p>						
5쪽	<p>1. 예시 답안) 한 번 실패한 뒤로 계속 실패할 게 두려워졌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다. 2. 나무 요정, 느티나무 3. 예시 답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다.</p>						
6쪽	<p>1.</p> <table border="1" data-bbox="268 992 1377 1144"> <thead> <tr> <th data-bbox="268 992 821 1032">(가)</th> <th data-bbox="821 992 1377 1032">(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8 1032 821 1144">⇒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가족과 살면 구박을 받으면서 살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가정의 아이는 문제아가 많다. 등</td> <td data-bbox="821 1032 1377 1144">⇒ 검은 고양이는 불길한 동물이다.</td> </tr> </tbody> </table> <p>2. 예시 답안) 서운아, 친구들은 너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너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지금 힘든 일이 많지만,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그러니까 힘내! 3. 예시 답안) 공부를 못하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유기견은 키우기 힘들다. 날씬한 게 좋은 거다. 등</p>	(가)	(나)	⇒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가족과 살면 구박을 받으면서 살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가정의 아이는 문제아가 많다. 등	⇒ 검은 고양이는 불길한 동물이다.		
(가)	(나)						
⇒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가족과 살면 구박을 받으면서 살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가정의 아이는 문제아가 많다. 등	⇒ 검은 고양이는 불길한 동물이다.						
7쪽	<p>1. 예시 답안) (가)에서는 외로워하고 있고, (나)에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즐거워하고 있다. 2. 예시 답안) 더는 찾는 사람이 없어 쓸쓸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너무 반갑고 즐거웠을 것 같다. 3.</p> <table border="1" data-bbox="268 1413 1377 1648"> <tbody> <tr> <td data-bbox="268 1413 675 1469">어디에 있는 나무인가요?</td> <td data-bbox="675 1413 1377 1469">⇒ 예시 답안) 아파트 화단에 있는 나무</td> </tr> <tr> <td data-bbox="268 1469 675 1525">어떻게 생겼나요?</td> <td data-bbox="675 1469 1377 1525">⇒ 예시 답안) 잎이 커다랗고, 키가 크다.</td> </tr> <tr> <td data-bbox="268 1525 675 1648">나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td> <td data-bbox="675 1525 1377 1648">⇒ 예시 답안) 나무 주변에 꽃이 많이 피었는데, 꽃들이 예쁘다는 생각을 할 거 같다. 오랜 시간 사귄 친구들과의 추억도 그리워할 것 같다.</td> </tr> </tbody> </table>	어디에 있는 나무인가요?	⇒ 예시 답안) 아파트 화단에 있는 나무	어떻게 생겼나요?	⇒ 예시 답안) 잎이 커다랗고, 키가 크다.	나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 예시 답안) 나무 주변에 꽃이 많이 피었는데, 꽃들이 예쁘다는 생각을 할 거 같다. 오랜 시간 사귄 친구들과의 추억도 그리워할 것 같다.
어디에 있는 나무인가요?	⇒ 예시 답안) 아파트 화단에 있는 나무						
어떻게 생겼나요?	⇒ 예시 답안) 잎이 커다랗고, 키가 크다.						
나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 예시 답안) 나무 주변에 꽃이 많이 피었는데, 꽃들이 예쁘다는 생각을 할 거 같다. 오랜 시간 사귄 친구들과의 추억도 그리워할 것 같다.						
8쪽	<p>1.</p> <table border="1" data-bbox="268 1753 1377 1989"> <tbody> <tr> <td data-bbox="268 1753 675 1843">예준</td> <td data-bbox="675 1753 1377 1843">⇒ 느티나무 앞에서 1년에 두 번 바이올린 연주회를 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였다.</td> </tr> <tr> <td data-bbox="268 1843 675 1933">서운</td> <td data-bbox="675 1843 1377 1933">⇒ 느티나무를 지킬 수 있다면 고양이에 관한 상식을 나누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td> </tr> <tr> <td data-bbox="268 1933 675 1989">김불들이 할머니</td> <td data-bbox="675 1933 1377 1989">⇒ 느티나무에 금줄을 걸고, 사람들에게 나무를 베지 말라고 경고했다.</td> </tr> </tbody> </table>	예준	⇒ 느티나무 앞에서 1년에 두 번 바이올린 연주회를 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서운	⇒ 느티나무를 지킬 수 있다면 고양이에 관한 상식을 나누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김불들이 할머니	⇒ 느티나무에 금줄을 걸고, 사람들에게 나무를 베지 말라고 경고했다.
예준	⇒ 느티나무 앞에서 1년에 두 번 바이올린 연주회를 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서운	⇒ 느티나무를 지킬 수 있다면 고양이에 관한 상식을 나누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김불들이 할머니	⇒ 느티나무에 금줄을 걸고, 사람들에게 나무를 베지 말라고 경고했다.						

	<p>2. 예시 답안) 반대한다. 느티나무 덕분에 여름엔 시원한 그늘이 생기고, 겨울엔 바람을 막아 주기도 한다. 또 느티나무에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있으면 밤에도 무섭지 않다. 그리고 느티나무가 심겨 있는 땅은 원래 느티나무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베는 것에 반대한다.</p>												
<p>9쪽</p>	<p>1.</p> <table border="1" data-bbox="268 448 1353 869"> <thead> <tr> <th data-bbox="268 448 405 524">인물</th> <th data-bbox="405 448 842 524">느티나무를 만나기 전</th> <th data-bbox="842 448 1353 524">느티나무를 만난 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8 524 405 654">예준</td> <td data-bbox="405 524 842 654">⇒ 예시 답안) 콩쿠르에서 떨어진 후, 좌절한다. 바이올린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td> <td data-bbox="842 524 1353 654">⇒ 예시 답안) 콩쿠르에서 입선하지 않아도 충분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 아픔이 있어야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td> </tr> <tr> <td data-bbox="268 654 405 779">서운</td> <td data-bbox="405 654 842 779">⇒ 예시 답안)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도 슬픈데, 친구들이 그걸 알고 따돌리려는 것 같아 속상해 한다.</td> <td data-bbox="842 654 1353 779">⇒ 예시 답안)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태어날 수 없고, 그런 것으로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나무에게 듣고 위로를 받는다.</td> </tr> <tr> <td data-bbox="268 779 405 869">김불들이 할머니</td> <td data-bbox="405 779 842 869">⇒ 예시 답안) 타지에서 홀로 외로워한다.</td> <td data-bbox="842 779 1353 869">⇒ 예시 답안) 느티나무 아래에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게 된다.</td> </tr> </tbody> </table> <p>2.</p> <p>예시 답안) 느티나무야, 안녕! 나 예준이야. 네 덕분에 다시 바이올린을 켤 수 있게 되었어. 분명 앞으로도 상처받고 좌절할 일이 있겠지? 하지만 상처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더 크고 있다는 걸 기억할게. 그리고 바이올린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나는 빛나는 존재라는 것도.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있어 줘. ***년 **월 **일 예준이가</p>	인물	느티나무를 만나기 전	느티나무를 만난 후	예준	⇒ 예시 답안) 콩쿠르에서 떨어진 후, 좌절한다. 바이올린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 예시 답안) 콩쿠르에서 입선하지 않아도 충분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 아픔이 있어야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서운	⇒ 예시 답안)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도 슬픈데, 친구들이 그걸 알고 따돌리려는 것 같아 속상해 한다.	⇒ 예시 답안)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태어날 수 없고, 그런 것으로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나무에게 듣고 위로를 받는다.	김불들이 할머니	⇒ 예시 답안) 타지에서 홀로 외로워한다.	⇒ 예시 답안) 느티나무 아래에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게 된다.
인물	느티나무를 만나기 전	느티나무를 만난 후											
예준	⇒ 예시 답안) 콩쿠르에서 떨어진 후, 좌절한다. 바이올린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 예시 답안) 콩쿠르에서 입선하지 않아도 충분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 아픔이 있어야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서운	⇒ 예시 답안)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도 슬픈데, 친구들이 그걸 알고 따돌리려는 것 같아 속상해 한다.	⇒ 예시 답안)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태어날 수 없고, 그런 것으로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나무에게 듣고 위로를 받는다.											
김불들이 할머니	⇒ 예시 답안) 타지에서 홀로 외로워한다.	⇒ 예시 답안) 느티나무 아래에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게 된다.											
<p>10쪽</p>	<table border="1" data-bbox="268 1178 1353 1464"> <thead> <tr> <th data-bbox="268 1178 810 1272">친구들의 고민</th> <th data-bbox="810 1178 1353 1272">나무라면 뭐라 말할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8 1272 810 1464">⇒ 예시 답안)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도 연예인처럼 예뻐지고 싶어.</td> <td data-bbox="810 1272 1353 1464">⇒ 예시 답안) 모든 나무가 다 다르게 생겼고, 우리는 누군가를 잘생겼거나 못생겼다고 하지 않아. 모두 특별하게 생각하지. 너도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td> </tr> </tbody> </table>	친구들의 고민	나무라면 뭐라 말할까?	⇒ 예시 답안)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도 연예인처럼 예뻐지고 싶어.	⇒ 예시 답안) 모든 나무가 다 다르게 생겼고, 우리는 누군가를 잘생겼거나 못생겼다고 하지 않아. 모두 특별하게 생각하지. 너도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친구들의 고민	나무라면 뭐라 말할까?												
⇒ 예시 답안)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도 연예인처럼 예뻐지고 싶어.	⇒ 예시 답안) 모든 나무가 다 다르게 생겼고, 우리는 누군가를 잘생겼거나 못생겼다고 하지 않아. 모두 특별하게 생각하지. 너도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